

Global Strategy

Global Strategist 문남중
namjoong.moon@daishin.com

美 1/4분기 어닝시즌 개막. 시선을 옮기다

- 4.12일 대형 금융주 실적 발표 시작. 현 기울어진 시장 시선을 옮겨주는 매개체
- 1/4분기 S&P500 EPS 증가율, IT, 커뮤니케이션, 경기소비재 주축으로 개선 유지
- 현 미국 증시, 인플레이션 위험에 자극. 어닝시즌 진입 이후 실적 기대 반응

4.12일 JP모건, 씨티그룹,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 1/4분기 어닝시즌이 포문을 연다. 3월 CPI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키며, 금리 상승+달러 강세+주가 하락을 연출시켰다.

하지만 11일 하루만에 반등한 미국 증시 흐름을 감안하면, 인플레이션과 연준 통화정책 외에도 미국 증시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변수(경기, 기업 실적 등)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.

미국 1/4분기 어닝시즌이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 시선(통화정책→우려)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되어줄 것이다. 우선 앞으로 2주 동안 주목받을 금융섹터 실적 결과가 어닝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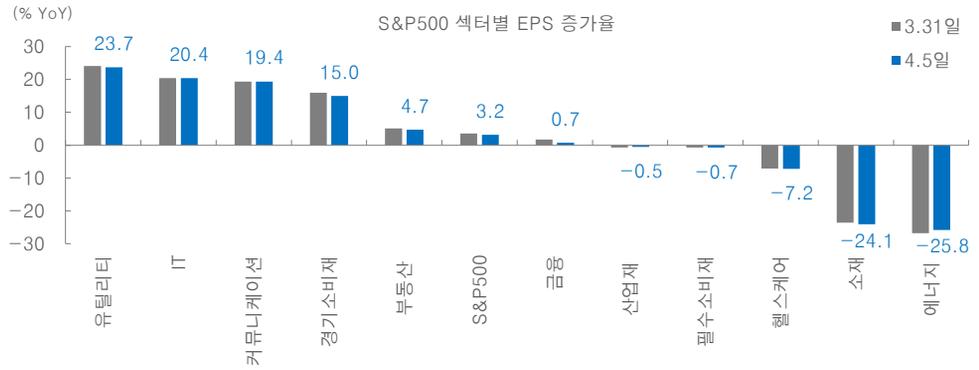
금융섹터의 1/4분기 EPS 증가율(YoY이하) 예상치는 +0.7%로 11개 섹터 내 6번째로 높은 실적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. 금융섹터 내 5개 하위섹터 가운데, 3개 부문(보험 +37%, 소비자금융 +13%, 금융서비스 +11%)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(+37%)이 전체 금융섹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.

뜨겁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을 금융섹터 실적을 확인 후, 시선은 올해 시름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IT,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다.

현재 1/4분기 S&P500 EPS 증가율은 +3.2%로 3월 말(+3.5%)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,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IT(+20.4%), 커뮤니케이션(+19.4%)의 EPS 증가율은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. 경기소비재(+15%)는 3월 말(+16.0%)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, 여전히 IT, 커뮤니케이션, 경기소비재를 주축으로 미국 실적 개선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올해 미국 증시가 성장섹터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.

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 어닝시즌의 특징은, 어닝시즌 진입 전 하향 조정됐던 실적 추정치가 어닝시즌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급격히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. 현재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자극받고 있지만, 어닝시즌 진입 이후 실적 기대에 반응할 것이다.

그림 1. 24.1/4 분기 S&P500 EPS 증가율 전망. IT · 커뮤니케이션, 실적 전망치 유지



자료: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문남중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